

---

# Ⅲ

##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41
2. 소액결제시스템	48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55
4. 증권결제시스템	57



# 1. 거액결제시스템

## 가. 결제규모

### 원화자금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은 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2019년 중 일평균 369.9조원으로 증권자금 결제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다.<sup>1)</sup>

표 III-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금액(일평균)

	2017	2018	2019	증감률
원화자금 합계	323.0	340.7	369.9	8.6
참가기관 간	307.7	324.8	353.9	8.9
콜자금	27.2	23.5	21.1	-10.5
증권자금	167.3	187.9	214.6	14.2
외환자금	19.3	15.9	14.6	-8.7
고객자금 <sup>1)</sup>	42.5	45.3	50.2	10.8
차액자금 <sup>2)</sup>	16.9	18.1	18.1	0.3
기타	34.5	34.1	35.3	3.6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sup>3)</sup>	15.3	15.9	16.1	1.0
외화자금 합계(십억달러) <sup>4)</sup>	0.5	0.7	0.7	-4.3

주: 1)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한은금융망을 이용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자금, 연계결제 포함

2) 차액방식으로 처리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

3)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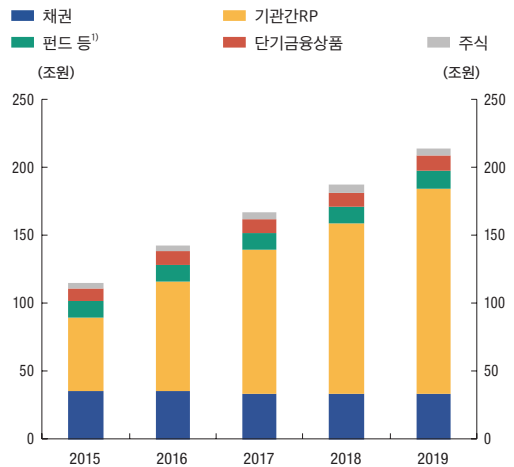
4) 예치 및 인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자금 종류별로 보면 콜자금은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등 규제비용 준수에 따른 국내은행의 콜 차입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

폭 감소(-10.5%)하였다. 반면 증권자금<sup>2)</sup> 결제금액은 기관간RP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14.2% 증가하였다. 특히 기관간RP 거래가 전체 증권자금 결제금액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 금융투자회사의 RP 이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로 RP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확대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 한은금융망 증권자금 결제금액(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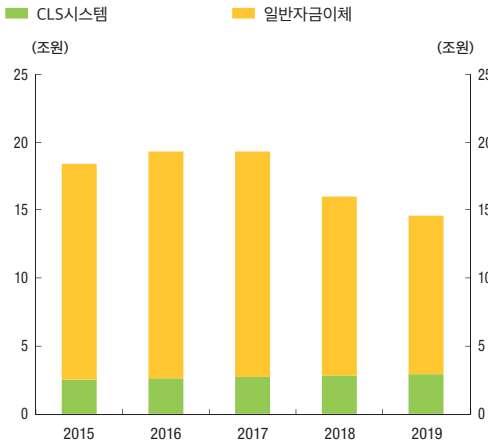
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증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외환자금<sup>3)</sup> 결제금액은 CLS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증가(+3.8%)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 환거래 시스템을 통한 일반자금이체가 감소(-11.4%)함에 따라 전년대비 8.7% 감소하였다.

1) 2019년 중 결제건수는 일평균 19,939건으로 전년(17,962건)에 비해 11.0% 증가하였다.

2) 증권대금동시결제(DvP)에 더해 분리결제 및 채권원리금 상환 등의 부수거래도 포함된다. 은행채, 지방채, 회사채 등의 채권 원리금 상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원리금 상환 영수증을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괄 수령하고 동 자금을 한은금융망 및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개별 투자자앞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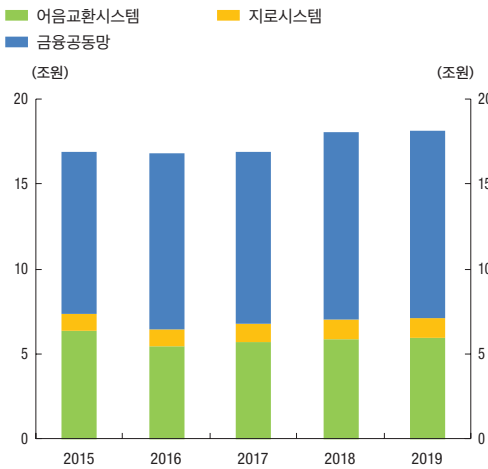
3)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원화자금이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다. CLS시스템은 CLS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매도통화 지급과 매입통화 수취를 국가 간 시차 없이 동시에 처리한다.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외환자금<sup>1)</sup> 결제금액(일평균)

주: 1) CLS는 차액 기준, 일반자금이체는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간 차액자금 결제금액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8.1조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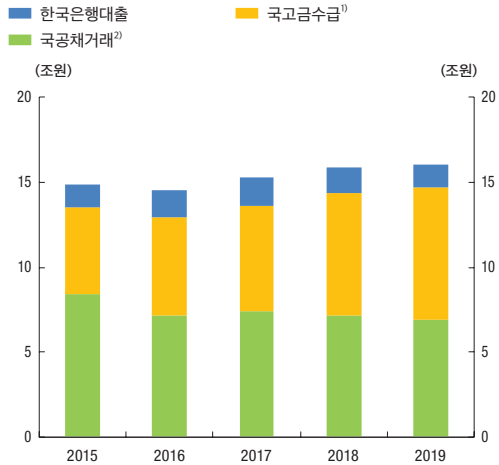
그림 III-3. 한은금융망 차액자금 결제금액(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공채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등에 수반되는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은 일평균 16.1조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하였다. 이는 국고금 수급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그림 III-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금액(일평균)



주: 1)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여유자금 운용 및 회수, 국제 수납 등)만 포함  
 2)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환매 포함)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금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지급준비금 적립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화예수금 계정을 통하여 외국환은행의 미 달러화, 엔화 등 외화자금을 이체, 예치, 인출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019년 중 외화자금 결제금액(예치 및 인출 포함)은 일평균 6.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 중 거주자외화예금 감소로 필요지급준비금이 줄어들어 예치금액이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III-2. 한은금융망 외화자금 결제금액(일평균)

(백만달러,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이체	0.8	0.1	0.3	0.2	-44.6
예치	243.8	258.2	347.0	333.0	-4.1
인출	275.8	272.7	359.5	343.2	-4.5
합계	520.3	530.9	706.8	676.3	-4.3

자료: 한국은행

## 참고 III-1.

###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sup>1)</sup>,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1만건 및 18.3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4%, 7.5%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규모가 크게 확대<sup>2)</sup>되고 국세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 규모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 국고전산망 처리 규모(일평균)

(천건, 조원, %)

		2018	2019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3.9	44.8	2.2
	파일 송수신	339.5	367.0	8.1
	(국고금수납)	304.3	315.6	3.7
	(국세환급)	35.2	51.4	46.0
	계	383.4	411.8	7.4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5.0	16.2	8.4
	파일 송수신	2.1	2.1	1.0
	(국고금수납)	1.8	1.8	1.4
	(국세환급)	0.3	0.3	-1.2
	계	17.1	18.3	7.5

자료: 한국은행

#### 국공채 거래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국고채권과 재정증권 발행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입찰, 증권·대금결제, 증권예탁, 원리금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과 연계한 ‘한국은행 증권시스템(BOK-Securitie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중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을 통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규모는 142.1조원, 상환규모는 149.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1.1%, 5.8% 감소하였다.

1)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구축된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이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 2019년 중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건수 및 금액은 473만건, 5.0조원으로 전년(260만건, 1.8조원)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상환

(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발행	161.1	163.7	159.8	142.1	-11.1
상환	177.1	161.2	159.0	149.7	-5.8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증권매매규모도 전년대비 9.4% 감소한 549.0조원을 기록하였다.

## 증권매매 및 증권대차

(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증권매매	RP 매입	1.8	6.1	0.8	11.5	1,337.5
	RP 매각	601.8	622.6	600.9	536.2	-10.8
	단순 매입	1.3	3.5	4.2	1.3	-69.0
	계	604.8	632.2	605.9	549.0	-9.4
증권대차 (차입)		0.0	4.0	0.0	0.0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국고채권 발행규모는 101.7조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상환규모는 57.2조원으로 전년대비 25.8% 감소하였다.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8.7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 국고채권,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액면금액 기준, 조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국고채권	발행	101.1	100.8	97.4	101.7	4.4
	상환	69.3	71.0	77.1	57.2	-25.8
재정증권	발행	20.9	7.9	2.0	48.7	2,335.0
	상환	20.9	7.9	2.0	48.7	2,335.0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은 2019년말 기준 15.6조원으로 전년말대비 1.5조원(+10.5%) 증가하였다.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조원, %)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
금융중개자원대출	17.3	17.2	14.1	15.6	10.5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자료: 한국은행

## 나.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해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50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 증가하였다.

표 III-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2017	2018	2019	증감률
일중당좌대출 <sup>1)</sup>	318.2	328.5	432.1	31.5
일중RP	2,055.9	2,147.9	2,618.1	21.9
계	2,374.1	2,476.4	3,050.2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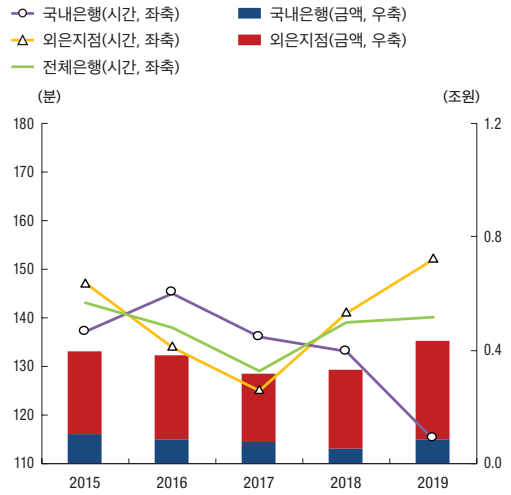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 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된다.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일평균 4,321억원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 이용금액은 국내은행이 84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7억원 증가하였고, 외은지점은 3,475억원으로 729억원 증가하였다.

일중당좌대출 이용시간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일평균 140분을 기록하였다. 은행 그룹별로는 국내은행의 이용시간이 115분으로 전년에 비해 18분 단축된 반면 외은지점이 152분으로 11분 확대되었다.

그림 III-5.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sup>1)</sup> 및 시간(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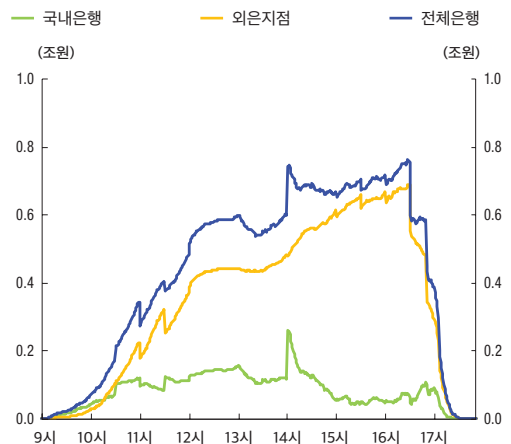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은행의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은 자금이체가 집중되는 16시경까지 증가하다 16시 30분경 일중 최고치(7,620억원)를 기록한 뒤 감소하였는데, 일중 최고치는 전년(6,359억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림 III-6. 시간대별 일중당좌대출 잔액<sup>1)</sup>(일평균)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결제전용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일중RP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기관 간 자금 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RP방식을 이용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제도를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중RP 이용금액은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장내 채권시장에서 일중RP 이용을 늘린 데 주로 기인하여 전년보다 21.9% 증가한 일평균 2조 6,181억원을 기록하였다.

표 III-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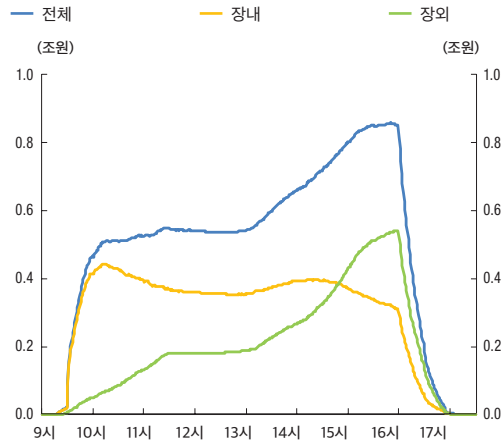
(십억원, %)

	2018			2019			증감률
	장내	장외	계	장내	장외	계	
한국거래소	1,115.8	-	1,115.8	1,382.8	-	1,382.8	23.9
금융투자회사	264.9	767.2	1,032.1	379.3	856.0	1,235.3	19.7
계	1,380.8	767.2	2,147.9	1,762.1	856.0	2,618.1	21.9

자료: 한국은행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잔액은 오전 중 결제가 절반 이상 완료되는 장내국채시장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이 10시경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13시부터는 장외 채권거래 결제를 위한 일중RP 사용이 꾸준히 늘어나다가 공급마감시각(16:00)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일중 전액 상환되었다. 한편 일중RP 공급잔액은 일중RP 상환시각이 전년에 비해 소폭 늦어진<sup>4)</sup> 영향으로 2018년보다 6분 늦어진 15시 50분에 최고치(8,571억원)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7. 시간대별 일중RP 잔액<sup>1)</sup>(일평균)



주: 1) 분당 순공급액(일중 누적공급액-누적상환액)  
자료: 한국은행

4) 일중RP 평균 상환시각은 13시 57분으로 전년(13시 55분)에 비해 2분 늦어졌다.



## 다. 결제리스크 관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대기비율<sup>5)</sup>,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을 통해 볼 때 한은금융망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중당좌대출 한도 대비 최고사용액 비율(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은 21.3%로 전년(20.4%)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비율은 3.9%로 전년(4.7%)에 비해 하락하였다.

표 III-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 (금액 기준)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비율 <sup>1)</sup>	4.5	4.1	4.1	4.7	3.9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sup>2)</sup>	23.7	20.7	19.4	20.4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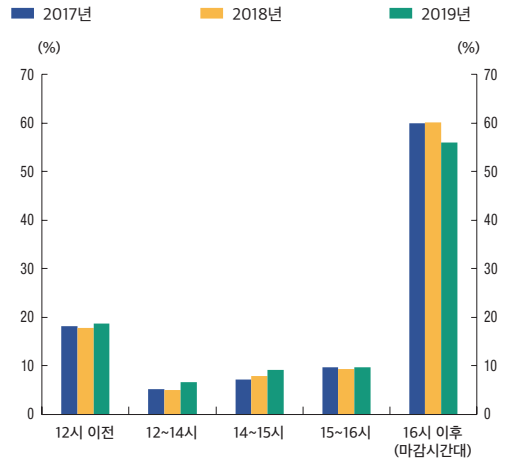
주: 1)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점검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 한도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19년 중 한은금융망 마감시간대인 16시 이후의 결제집중률(금액 기준)은 56.0%로 전년(60.2%)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림 III-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sup>1)</sup>(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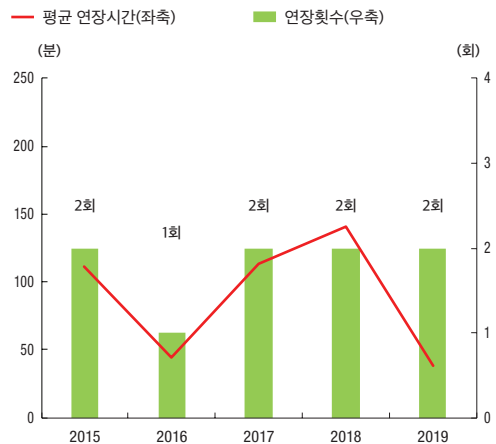


주: 1) 각 시간대별 결제금액/총 결제금액

자료: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마감시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중 2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평균 연장시간은 38분으로 전년(141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연장 사유는 2회(2019년 4월, 8월) 모두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이후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 목적의 RP매매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III-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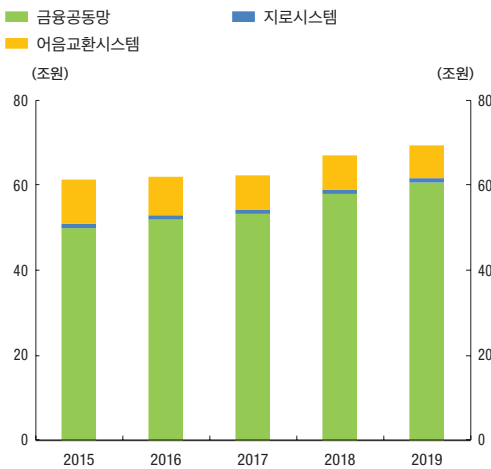
5) 한은금융망에 접수된 자금 이체지시가 계좌잔액 부족으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일시 대기되는 비율이다.

## 2. 소액결제시스템

### 가. 결제규모

2019년 중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sup>6)</sup>는 일평균 2,455만건, 69.4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6% 및 3.7% 증가하였다. 이는 어음교환시스템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공동망 이용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그림 III-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일평균 2,000만건, 60.8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8% 및 4.9% 증가하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표 III-6. 금융공동망·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금융공동망	16,206	18,046	20,001	10.8
	(전자금융공동망)	10,289	12,178	14,236	16.9
	(타행환공동망)	333	319	295	-7.6
	(CD공동망)	1,796	1,700	1,548	-8.9
	어음교환시스템	421	329	252	-23.3
	(자기앞수표)	412	321	245	-23.6
	(약속어음등 <sup>1)</sup> )	7	6	5	-16.2
	지로시스템	4,675	4,437	4,301	-3.1
	(일반이체)	943	873	798	-8.6
	(자동이체)	3,337	3,187	3,136	-1.6
(대량지급)	299	304	311	2.1	
금액	금융공동망	53,146	57,925	60,755	4.9
	(전자금융공동망)	46,933	51,793	54,823	5.8
	(타행환공동망)	4,822	4,793	4,679	-2.4
	(CD공동망)	923	892	818	-8.3
	어음교환시스템	8,220	8,002	7,661	-4.3
	(자기앞수표)	1,413	1,249	1,132	-9.4
	(약속어음등 <sup>1)</sup> )	4,036	4,163	3,892	-6.5
	지로시스템	1,009	1,024	1,030	0.7
	(일반이체)	392	398	392	-1.5
	(자동이체)	368	372	380	1.9
(대량지급)	227	238	247	3.8	

주: 1)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반면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규모는 일평균 25만건(-23.3%) 및 7.7조원(-4.3%)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등의 결제건수는 5만원권 지폐, 전자방식 지급수단 등으로 대체되며 크게 감소하였다.

지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를 보면, 건수는 일평균 430만건으로 전년보다 감소(-3.1%)하였으나 금액은 일평균 1.0조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0.7%)하였다. 자금이체 건수는 펌

6) 금융공동망 및 지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규모를, 어음교환시스템의 경우 교환규모를 각각 의미한다.

뱅킹 등 여타 이체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반이체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금액은 각종 공과금 등의 이체가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하였다.

## 나. 결제리스크 관리

소액결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고객 간 자금이체는 일중에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대차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금융망에서 최종 결제한다. 이를 위해 참가기관은 순이체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참가기관들의 총 순이체한도 규모<sup>7)</sup>는 2019년말 47.3조원으로 전년말대비 3.5% 증가하였다.

표 III-7.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별 순이체한도<sup>1)</sup> 현황

	(기말기준, 조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직접참가기관	41.6	42.1	43.5	3.5
위탁기관	3.7	3.7	3.8	3.5
금융투자회사	2.0	2.0	2.0	0.5
기타 <sup>2)</sup>	1.7	1.7	1.8	7.1
합계	45.3	45.7	47.3	3.5

주: 1)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발생시킬 수 있는 순이체(타행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타행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의 한도  
 2)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자료: 한국은행

2019년 중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은 17.2%로 전년(18.6%)에 비해 하락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83회로 전년(87회)대비

감소하였으며 순이체한도 소진율이 100%를 초과하여 자금이체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

표 III-8. 순이체한도 이용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 <sup>1)</sup>	19.0	19.4	18.5	18.6	17.2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 상회횟수	62	51	71	87	83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참가기관들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순이체한도의 일정비율(담보제공비율)만큼의 증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한다. 2019년말 담보인정금액은 37.1조원으로 전년말(26.2조원)보다 10.9조원 증가하였다.

7) 순이체한도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전자금융공동망·타행환공동망 등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용된다. 차액결제 참가기관은 한국은행에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적격증권을 제공해야 하는데, 순이체한도 설정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그 한도의 70%, 순이체한도 설정대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평균 교환 순지급금액의 70%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 III-2.

###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 어음·수표

2019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4.2% 및 11.3% 감소하였다.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 이용 확대 등에 따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감소에 따라, 약속어음은 전자방식 지급수단 확산 등에 따라 이용규모가 감소하였다.

#### 어음수표 이용규모<sup>1)</sup>(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자기앞수표	637	485	366	-24.6
	정액권 (10만원권)	431	313	225	-28.2
	비정액권	59	51	44	-13.3
	약속어음등 <sup>2)</sup>	16	15	13	-12.7
	전자어음	8.7	8.5	7.7	-10.1
	기타증서 <sup>3)</sup>	2.5	2.1	1.9	-9.5
	합 계	655	502	381	-24.2
	금액	자기앞수표	1,926	1,658	1,455
정액권 (10만원권)	189	152	119	-21.8	
비정액권	43	31	22	-28.2	
약속어음등 <sup>2)</sup>	1,737	1,506	1,336	-11.3	
전자어음	15,924	15,212	13,175	-13.4	
기타증서 <sup>3)</sup>	1,366	1,099	1,262	14.8	
합 계	2,770	2,590	2,637	1.8	
합 계	20,620	19,461	17,267	-11.3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분, 창구제시분 및 전자어음 포함

2)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 계좌이체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한은금융망 제외)는 건수 및 금액이 전년보다 각각 8.6%, 4.8%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펌뱅킹 등 전자방식 지급수단 이용의 확대로 건수 및 금액 모두 높은 증가세(+16.9%, +5.8%)를 보인 것에 주로 기인한다.

#### 계좌이체 이용규모<sup>1)</sup>(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입금이체 <sup>1)</sup>	13,128	14,816	16,652	12.4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sup>2)3)</sup> )	10,289	12,178	14,236	16.9
	(펌뱅킹 <sup>2)4)</sup> )	5,555	6,629	7,838	18.2
	타행환공동망	3,645	4,424	5,418	22.5
	출금이체	333	319	295	-7.6
	합 계	7,010	6,932	6,958	0.4
합 계	20,138	21,749	23,610	8.6	
금액	입금이체 <sup>1)</sup>	53,204	57,990	60,830	4.9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sup>2)3)</sup> )	46,933	51,793	54,823	5.8
	(펌뱅킹 <sup>2)4)</sup> )	22,366	24,002	25,125	4.7
	타행환공동망	19,276	20,925	21,752	3.9
	출금이체	4,822	4,793	4,679	-2.4
	합 계	778	785	787	0.3
합 계	53,982	58,774	61,617	4.8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뱅킹 이용규모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 (지급카드)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6,506만건 및 2.7조 원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11.0% 및 5.3% 증가하였다.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물품·용역구매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2.4% 및 5.0% 증가하였다. 체크카드도 세제혜택 및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8.2%, 6.2% 증가하였다. 선불카드 이용규모도 모바일선불카드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각각 28.0%, 18.8% 증가하였고, 기타 지급카드의 경우 현금IC카드를 중심으로 이용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각각 292.3% 및 74.2% 증가<sup>1)</sup>하였다.

###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

		2017	2018	2019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32,782	36,197	40,693	12.4
	물품및용역	32,548	35,967	40,470	12.5
	현금서비스	234	229	224	-2.4
	체크카드	20,127	22,321	24,141	8.2
	선불카드	68	67	86	28.0
	기타 <sup>1)</sup>	16.4	36.0	141.4	292.3
	합 계	52,994	58,621	65,062	11.0
금액	신용카드	1,926	2,031	2,132	5.0
	물품및용역	1,760	1,862	1,967	5.7
	현금서비스	166	169	165	-2.4
	체크카드	466	502	532	6.2
	선불카드	2.1	2.1	2.5	18.8
	기타 <sup>1)</sup>	1.1	1.4	2.4	74.2
	합 계	2,395	2,536	2,670	5.3

주: 1) 현금IC카드 및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금융결제원

1) 2018년 중 대형 소비물품 업체가 현금IC카드 가맹점으로 신규 참가한 이후 이용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참고 III-3.

### 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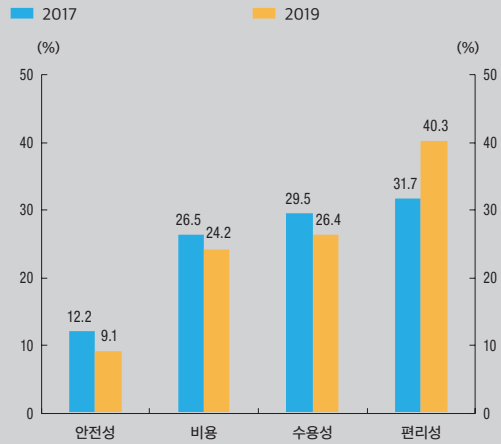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전국 19세 이상 2,650명을 대상으로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19.10~12월)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급수단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및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급수단 특성에 대한 인식

지급수단별 주요 특성(안전성, 수용성, 비용, 편리성)을 고려한 종합만족도<sup>1)</sup>는 신용카드(80.8점)와 현금(79.5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체크·직불카드(76.5점), 계좌이체(64.0점), 모바일카드(57.2점),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52.3점) 순이었다. 신용카드는 편리성(85.7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금은 수용성(91.7점), 비용(88.3점), 안전성(74.1점)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은 편리성(40.3점), 수용성(26.4점), 비용(24.2점), 안전성(9.1점) 순으로 나타났다.<sup>2)</sup> 2017년에 비해 편리성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수용성·비용·안전성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 지급수단 선택 시 고려사항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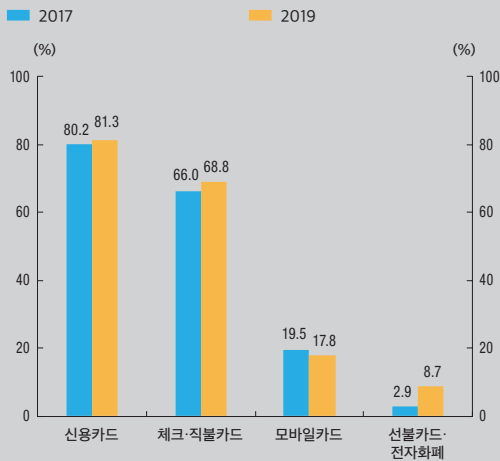
#### 지급수단 보유 현황

개인이 평소 보유하는 현금 규모는 2017년(8.0만원)에 비해 2.7만원 감소한 5.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급수단별 보유율은 신용카드 및 체크·직불카드가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각각 81.3%, 68.8%를 기록하였다. 모바일카드 보유율은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17.8%를, 선불카드·전자화폐 보유율은 3배 가까이 증가한 8.7%를 나타내었다.

1) 지급수단별 종합만족도에 대해 1~5점을 부여한 후 백분율로 환산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조사했다.

2) 4개 특성에 대한 평가의 합(편리성+안전성+수용성+비용)이 100이 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조사했다.

### 지급카드별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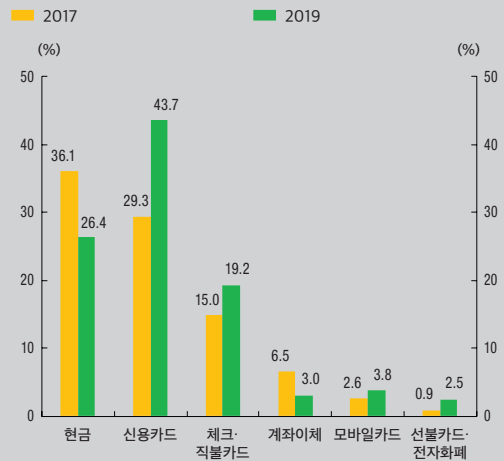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지급수단 이용 현황

지급수단별 이용경험을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96.5%)이 현금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신용카드(79.2%), 체크·직불카드(52.7%)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신용카드(63.5%), 계좌이체(32.9%), 체크카드(22.2%) 순으로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급수단별 이용(온라인, 오프라인) 비중을 건수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4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현금(26.4%), 체크·직불카드(19.2%), 모바일카드(3.8%), 계좌이체(3.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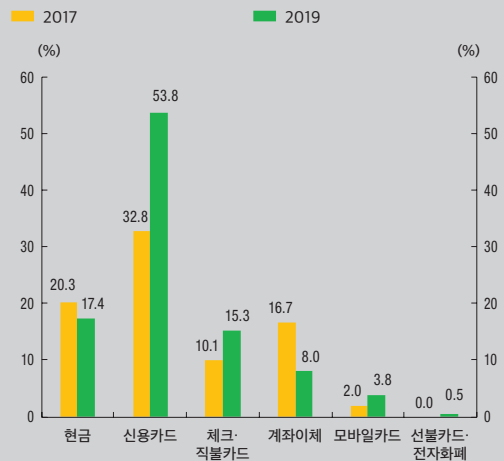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기준)



자료: 한국은행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신용카드(53.8%)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현금(17.4%), 체크·직불카드(15.3%), 계좌이체(8.0%), 모바일카드(3.8%) 순으로 조사되었다.

###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기준)



자료: 한국은행

지급장소별 주 사용 지급수단을 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전통시장(78.5%)과 소매점·매장·슈퍼마켓(41.6%)에서는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의 경우 세금납부는 계좌이체(37.5%)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지만, 온라인쇼핑몰(47.2%), TV홈쇼핑(43.8%), 온라인티켓(36.4%), 모바일 콘텐츠(20.9%)에서는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금액별 주 사용 지급수단을 보면 1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78.3%)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만원 이상 모든 금액대에서는 신용카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30만원의 경우 신용카드의 비중이 71.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향후 현금사용 전망

향후 응답자의 현금사용 규모에 대한 예상에는 59.2%가 사용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38.5%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 응답자의 40% 이상이 향후 현금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향후 현금사용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 향후 현금사용량 증감 예상

구분		향후 현금사용량 증감 예상 (%)		
		증가	감소	변화 없음
전 체		2.3	38.5	59.2
연령대별	20대	2.2	44.0	53.8
	30대	1.5	48.3	50.3
	40대	1.1	41.0	57.9
	50대	2.4	39.3	58.3
	60대	3.6	36.0	60.4
	70대 이상	3.3	16.3	80.5

자료: 한국은행

## 시사점

금번 조사결과 신용카드가 2014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종합만족도에서 현금을 앞질렀다. 소비자들이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함에 따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증가한 반면 현금 이용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다만 전자지급수단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수용성·비용 측면에서 고령층일수록 현금 선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현금이용 비중이 감소하고 향후 현금사용 감소를 예상하는 응답도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급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전히 현금 및 대면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에 대한 지급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ATM의 금융기관 간 공동 운영, 농어촌지역 최소 설치 의무화, 가맹점 현금인출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및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7.3%로 2017년 11.0%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혁신적이고 다양한 전자지급수단 출현으로 인해 지급수단 사기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급수단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응답자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각종 보안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법규 정비 및 사이버 보안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급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혁신적인 지급수단 이용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sup>8)</sup>

#### 가. 결제규모

2019년 중 CLS시스템을 통한 일평균 외환동시 결제금액은 외환거래규모 증가 및 외은지점의 CLS결제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한 743억달러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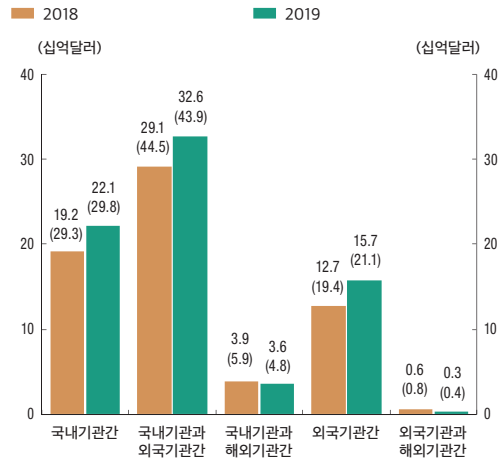
표 III-9. CLS시스템 결제규모<sup>1)</sup>(일평균)

	(십억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규모	55.7	50.4	50.7	65.4	74.3
증감률	2.4	-9.5	0.7	29.0	13.6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다자간차감 전 총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CLS결제규모를 결제주체별<sup>9)</sup>로 보면 국내기관과 외국기관 간 결제가 전체의 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관 간 결제가 29.8%, 외국기관 간 결제가 21.1%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sup>1)2)</sup>(일평균)



주: 1) 현물환·선물환·외환스왑거래 관련 금융기관 보고액 합계 기준  
2) ( ) 내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19년말 현재 18개국 2만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4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7개, 국내 금융투자회사 6개, 외은지점 19개, 외국 금융투자회사 1개)이 참가하고 있다. 2019년 중 1개의 외은지점(멕시코)이 CLS시스템을 탈퇴하였다.

표 III-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2019년말 현재)	
결제주체		참가기관	
국내 기관	은행(17)	국민, 농협, 광주, 대구, KEB하나, 수협, 수출입, 부산, 전북, 경남, 산업, 기업, 우리, 신한, 제주, SC제일, 한국씨티	
	금융투자회사(6)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신한금융투자	
외국 기관	은행(19)	HSBC, BOA, BNP파리바, SMBC, ING, 모건스탠리,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체이스, 엠유에프지,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치, DBS, 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소시에테제네랄, 대화, 중국, 미즈호, ANZ	
	금융투자회사(1)	노무라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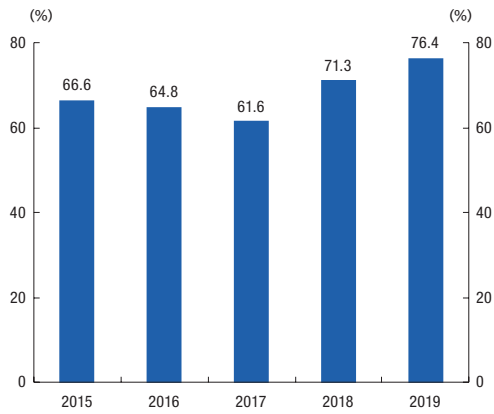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8) 외환결제는 은행 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9) 국내기관(국내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외국기관(외은지점 및 외국금융투자회사 지점) 및 해외기관으로 구분하였다.

## 나. 결제리스크 관리

외환동시결제 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입통화와 매도통화 간 결제시점 불일치로 인한 외환결제 리스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중 외환동시결제 비중(76.4%)은 외은지점의 CLS 결제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71.3%)대비 5.1%p 상승하였다.

그림 III-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sup>1)2)</sup> (일평균)



주: 1)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2)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한편 CLS시스템은 외환결제를 다자간차감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결제 필요 유동성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 2019년 중 금융기관의 원화 결제유동성 절감비율<sup>10)</sup>은 95.4%로 나타났다.

10) 결제유동성 절감비율(%)=[1-(실제납입액/총액기준 납입금액)]×100

## 4. 증권결제시스템

### 가. 결제규모

2019년 중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증권대금결제 규모는 일평균 186.4조원으로 전년대비 18.3% 증가하였다. 이 중 장내 결제규모는 일평균 2.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9% 증가하였다. 장외 증권거래의 결제규모도 일평균 183.9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 증가(+18.4%)하였다. 이는 장외채권 결제금액이 기관간RP(+21.2%)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

표 III-11. 증권결제 규모(일평균)

		(십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증감률
장내 결제	주식	503	566	484	-14.6
	채권 <sup>1)</sup>	1,472	1,608	1,898	18.0
	파생금융상품	77	112	108	-3.4
	소계	2,053	2,286	2,489	8.9
장외 결제	주식 <sup>2)</sup>	732	815	669	-18.0
	채권 <sup>3)</sup>	10,544	10,214	10,508	2.9
	기관간RP	105,542	128,123	155,271	21.2
	단기금융상품 <sup>4)</sup>	8,928	9,086	10,061	10.7
	펀드 등 <sup>5)</sup>	6,759	7,027	7,357	4.7
	파생금융상품 <sup>6)</sup>	18	30	45	50.1
소계		132,523	155,294	183,911	18.4
합계		134,575	157,581	186,400	18.3

주: 1) 국채(RP 포함) 및 일반채권 결제

2)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간 결제

3)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4) CD, CP, 전자단기사채의 연쇄결제 차감 후의 최종 결제

5)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환매 대금

6) 의무청산 개시(2014.6.30) 이후 한국거래소 청산 적격IRS 결제금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 나. 결제리스크 관리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는 증권과 대금이 정해진 시간에 지급되지 않거나 동시에 교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2019년 중 결제리스크는 참가기관이 대체로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을 납부하고 대금과 증권의 분리결제<sup>11)</sup>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장내 국채시장은 기준시한 이전에 대금과 증권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 장내 주식시장의 기준시한 이후 결제 비중과 장외 주식기관투자자의 기준시한 이후 결제 비중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sup>12)</sup> 장외 주식기관투자자시스템의 기준시한 이후 결제는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표 III-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

		(%)			
구분	결제시한 <sup>1)</sup>	기준시한 <sup>2)</sup>	2017	2018	2019
장내주식	16:00	16:00	0	0.025	0
장내국채	16:00	17:00	0	0	0
장외 주식기관 투자자	16:50	16:50	0.009	0.14	0.024

주: 1) 시스템 운영규정상의 납부시점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 기준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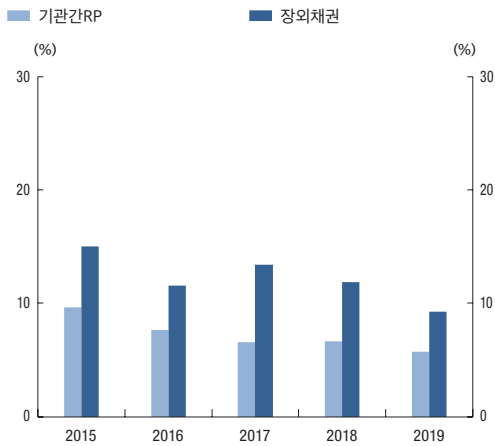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1) 대금지급과 증권인도 간의 시점 차이가 발생하는 분리결제는 동시결제에 비해 결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12) 장내증권(주식, 국채, 일반채권, RP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한국거래소(청산) 및 한국예탁결제원(결제)이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시스템을 통해, 장외주식의 청산 및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외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분리결제 비중은 2018년 6.7%에서 2019년 5.7%로, 장외 채권결제시스템의 분리결제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19년 9.3%로 하락하였다. 장외 채권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장외채권(-0.1%p), CD(-1.3%p), CP(-1.5%p), 전자단기사채(-11.2%p) 모두 전년에 비해 분리결제 비중이 하락하는 등 결제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림 III-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sup>1)2)</sup>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의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